

미래먹거리 '아열대작물' 이 해법

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작물이 뜨고 있다.

최근 지구 온도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0년경 아열대 기후지역은 우리나라(남반) 경지 면적의 10.1%에서 2060년 26.6%(RCP8.5 RCP), 2080년에는 62.3%로 늘어나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권에 속할 전망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최근 작황보고 있는 아열대작물 연구를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0종의 아열대작물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20종을 선발했다.

선발된 아열대 작물 20종에는 오카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감황, 사탕무, 연근, 계육, 롱빈, 아티초크, 인디언시

금치, 차요테 등 채소 12종과 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페모야, 구아바, 웨이조아 등 과수 8종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선발한 20종의 아열대작물 중 패션프루트, 망고 등 과수 5종, 여주, 롱빈, 아티초크 등 채소 8종 등 총 13작목의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아열대 과수 중 망고는 열풍기,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40%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나무 키를 낮게 키우는 방법으로 노동력 36% 절감과 상품률 20%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패션프루트 목목 번식기술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목목 값을 10a당 240만원 줄일 수 있다.

아열대 채소는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도입해 선발하고 있으며 관련 재배기술도 개발해 수량을 높이고 있다.

할당치를 낮추는 성분은 함유된 여주는 무거운 시설재배기술로 수량을 24% 늘렸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롱빈은 노지재배 정식기를 밝혀내 수량을 33% 높였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도입한 아열대작물의 가능성분도 분석하고 있으며 아열대작물의 한식 요리로 재탄생을 위해 경기대학교 김명희 교수팀 및 요리전문가와 함께 관련 조리법도 개발했다.

여주 소고기전, 파파야 샐러드, 공심

채 새우교자, 오카라 찜아지, 차요테 잎 추어탕, 파파야 깍두기 등 아열대 13작물을 이용해 95개의 요리 조리법을 만들어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기호도 변화,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1,000ha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작물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재배기술 개발·보급과 함께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새로운 소득 작물 연구로 미래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아열대작물이 우리 식생활과 함께하면서 한식세계화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예담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전북도-전북농협,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전북도와 전북농협의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30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9개 시·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로 안전한 고품질 전북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졌다.

'예담채'는 이번 수상과 더불어 3년 연속(2014년~2016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장관상 수상, 3년 연속(2015년~2017년)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정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2008년 브랜드 출시 이후 2009년 33억원, 2012년 165

억원, 2016년 940억원으로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뤘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브랜드 초기부터(2009년~2011년) 3년간 철저한 브랜드 조직화교육과 농가맞춤형 교육 등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매월 광역통합마케팅을 통해 창동, 상남 등 수도권 농협 하나로클럽과 광주,전남 및 제주도 하나로마트 등 전국적으로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강태호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단단히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겠다"며 "농산물 유통과 연합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 구현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전북농협이 총력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임금 체불 사업주, 지자체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 권익 보호

앞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지자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자는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임금체불방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중복제재에 해당되고, 자

치단체 계약의 부실이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공사업 원·하도급자의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제도 또한 도입한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에 과거 위반사실 때문에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려다 도 제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제재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담합 금품제공의 행위는 7년이 지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여경협, 여성 CEO MBA 교육 개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30일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제8기 여성CEO MBA 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개강 특별강연으로는 박용후, 관점디자이너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약 2시간동안 다르게 보는 힘과 말하는 통찰력, 시작생각과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MBA과정은 불확실한 4차 혁명의 미래와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된 상황들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여성기업인의 생존전략 수립과 산업기반을 이루고 핵심역할을 하게 될 여

성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R&D기법, 내수의 포화를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경협 박영자 전북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본격화 되면서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요즘, 4차 산업은 이미 우리곁에 다가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4차 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에 대해 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평가 추진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개선을 통한 기업 브랜드력 제고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 2차 중간 및 초기개발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재의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별 지원 규모를 지정해(인쇄물, 포장, 소포장, B/C), 자체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전문회사와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디자인 시제품 완성도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2차 중간 및 초기개발 평가는 31일 진행하며, 관련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개발내용의 적정성 및 창의성, 활용가능성 등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평가의 질의응답 시간에 지원업체 담당자를 포함하여 평가위원과 지원업체 및 전담업체와의 소통을 통한 개선사항을 점검해 디자인 개발물의 수준 향상에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신보, 저금리 추석명절 긴급자금 지원

전북신보보증재단은 추석명절을 맞아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17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자금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특성화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2.4% 내외의 저금리 특례보증을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12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제조업에는 최저 연 0.5% 중후반의 저리융자를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3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군산지역 조선소 폐쇄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1.8% 내외의 저금리 특례보

증을 실시하고, 조선업 협력기업 등에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산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노점상 등 무점포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햇살론과 11개 시군과의 협약 특례보증을 통해 2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기관 협약보증과 일반보증을 통해 융통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신보는 9월 한 달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상담제' 운용(본점에 한함)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에 7일정도 걸리던 보증처리 일수를 5일로 단축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